

Maison

marie claire

ARCH
AISONKOREA.COM

COVER STORY
FULL OF LIGHT
패턴 벽지와 패브릭으로
생기 넘치는 집

INTERIOR
리먼 머핀 갤러리 대표의 뉴욕 집
개그우먼 박나래의 원더랜드

SPACE
도운희 작가의
스튜디오

TRAVEL
**TRIP TO
THE CENTER OF
THE STONE**
프랑스 중부에 있는
지하 암석 도시

CRAFT
지승공예가
이영순 장인

SPECIAL
**ENTERTAINMENT
IN HOUSE**

즐겁고 감각적인 홈 인테리어 아이디어

정가 7,500원





부부의 비밀 낙원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품은 시골 마을로 떠나왔다. 이상을 현실로 실현시킨 부부의 낙원 같은 이 집은 이탈리아 브랜드 플렉스폼의 가구로 높은 품격과 아름다움을 갖췄다.

EDITOR 원지은

어나 한적한 외곽으로 삶의 환경을 바꾼다는 것이 단지 먼 꿈으로 그칠 만, 누군가에게는 신중한 결심으로 이루어낸 근본적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다.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중심지인 제네바에서 이탈리아의 외곽의 시골 마을로 이주한 전문직 종사자인 파올라와 마우리시오가 이들을 위한 새로운 삶은 트레비소 출신인 마우리시오의 가족이 물려준 낡고 방장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부부는 운하로 둘러싸인 13000m²가 넘는 땅을 짓기 위해 친구이자 건축가인 실비오 스테파니에게 설계를 맡겼다.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건물 디자인을 요청했다. 이 형태로 배열된 두 개의 직사각형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거실과 다이닝, 침실이 딸린 침실은 본관에 위치하며 그 옆 건물에는 세탁실과 차고 등 서브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큰 창은 거실과 다이닝 공간을 하나로 채워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리듬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플렉스폼의 베스트셀러이자 넉넉한 크기를 자랑하는 그라운드피스 시팅을 두어 마치 드넓은 바다 위 섬처럼 자리잡았다. 다른 한쪽에는 한 쌍의 오토만과 플라이 사이드 테이블을 배치했으며, 토마스 암처, 올리버 토비안 그리고 플라이 사이드 테이블과 겹쳐져 연출된 피우마 캐비닛과





어우러져 편안한 휴식을 위한 장소를 만든다. 또한 이 집의 주인인 파올라는 녹지와 정원 가꾸는 것을 좋아하는데 집 안 곳곳을 그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가구를 배치했다. 통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따사로운 다이닝 공간에는 카날레토 월넛과 소가죽으로 제작된 크로노 다이닝 চে어와 플라이 다이닝 테이블이 공간을 채운다. 옷을 갈아입을 때의 편의성을 고려해 옷장 옆으로 올티지아 S.H 암체어를 배치했다. 플라이 사이드 테이블과 틴다리 오토만 역시 실용적인 매력을 겸비했다. 실내도 좋지만 넓은 대지를 자랑하는 이곳의 또 다른 백미는 야외 공간일 것이다. 부부가 실내의 거실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긴 아웃도어 공간은 피터 아웃도어 암체어와 햄튼스 소파, 에코즈 아웃도어 오토만 등 다양한 실외 가구를 두어 심미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고품격 전원 라이프를 과감히 시도한 이들 부부의 계절에 따라 변화할 집의 모습이 더욱 궁금해진다. 플렉스폼 서울스토어 ADD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30 1-3층 TEL 02-511-3382



1 트레비소 외곽의 시골에 자리한 파올라와 마우리치오의 집. 가족이 물려준 낡은 농장에 자연과 어우러지는 부부만의 낙원 같은 집을 만들었다. 2,3 플렉스폼의 그라운드피스 시팅 시스템으로 넉넉한 휴식 공간을 만든 거실. 4 높은 천고를 가득 채운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툰다운된 컬러의 플라이 테이블과 크로노 চে어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다. 5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마당에는 햄튼 소파를 배치했다. 6 옷장 옆으로 효율적인 동선을 위해 배치한 올티지아 S.H 암체어.

